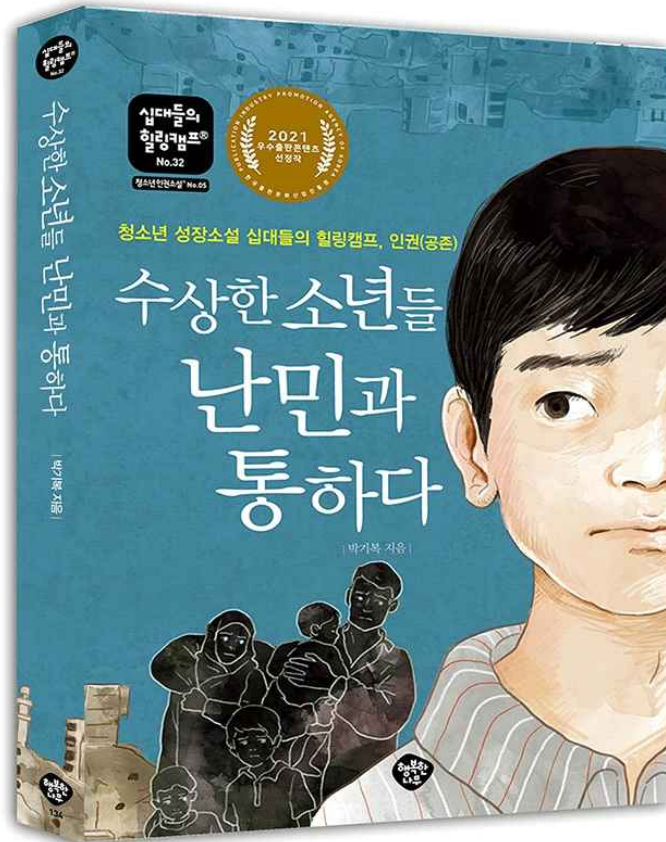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생)

수상한 소년들 난민과 통하다

청소년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인권(공존)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167쪽

주제어 : #인권 #공존 #난민 #관동대학살 #이재민 #이웃

분 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중학교	학년	반	번
이름			

구 성

활동	수업	활동 제목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침없이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참고자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읽기 중 활동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거리 정리하기 잠깐 멈춤! 생각! 옮겨 쓰고 낭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4차시		
	5차시		
읽기 후 활동	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이해하기 나와 연결하기 타인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8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 확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참고자료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독후감 쓰기	9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후감 쓰기 준비 독후감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하고 쉽게 독후감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10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후감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후감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앞표지] 소년의 얼굴 표정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2. [앞표지] 그림자처럼 검은색으로 표현된 사람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3. [뒤표지] “여기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인천공항 43번게이트 난민

#제주 예멘 난민

#관동대학살

--	--	--

책과 친해지는 습관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읽기를 멈추고 골똘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즐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즐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즐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즐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즐거리가 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이태경)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할아버지가 건네 준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해외여행 → 여흥방학을 할아버지 집에서 보냄 • 부모님과 하상통화 (노숙자 같은 이슬람 사람들 목격) • 고조할아버지가 일본에서 겪은 일을 적은 글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아버지 집에서 느긋함. 행복감 • 이슬람 사람을 보고 불쾌함 • 고조할아버지 글에 호기심
피죄죄한 방문자		
멀리하고 싶은 그 녀석		

● 1923년, 간토 (이경석)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흔들리는 대지		
타오르는 하늘		
화염보다 무서운 광기		

● 어느 날, 어느 나라 (알리)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대지를 쫓개는 굉음		
무너져 버린 세상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것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옮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옮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이태경)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구멍 뚫린 하늘	_____	_____
잃어버린 평화	_____	_____
불편한 동거	_____	_____

● 1923년, 간토 (이경석)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불량한 조선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로 피신 → 경찰서 정문에 붙은 안내문 발견 • 일본인 군중들이 경찰서로 난입 → 마구장이 살해 • 조선인을 보호하려던 카즈마 씨도 살해당함 → 도망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문의 불경선인 호칭에 분노 • 경찰서로 들어갈지를 두고 갈등 • 경찰이 가장 위험한 자들임을 인식
15엔 50전	_____	_____
용감한 여자	_____	_____

●어느 날, 어느 나라 (알리)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침략자들		
은밀한 탈출		
평화를 찾아서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이태경)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위험에 빠진 가족		
다시 찾은 평화		

● 1923년, 간토 (이경석)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우리와 같은 사람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 어느 날, 어느 나라 (알리)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빼앗긴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김 → 추방 명령 도움을 주겠다는 분을 만남 소송을 제기함 → 공항 구석에서 노숙자처럼 지내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방명령에 당황함 자신 때문에 업자가 당한 일을 떠올리며 진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함.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정말 한국인가요?		

● 에필로그(이태경)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너는 이름이 뭐야?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옮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옮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내용 이해하기

1. 이 소설은 세 가지 이야기가 전혀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지만 전개방식이 서로 닮았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일상 → 삶을 뒤흔든 큰 위기 → 도움의 손길'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세 이야기의 각 전개단계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세요.

구분	이태경	이경석	알리
평화로운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지내며 여유롭고 행복하다. 킥킥하고, 버릇없는 그 녀석(먼기)을 깐보며 싫어한다. 혹시나 물건이나 돈을 훔쳐갈까 바 경계한다. 		
삶을 뒤흔든 큰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난리가 나서 이재민이 되어 그 녀석 집으로 대피한다. 그 녀석이 괜한 트집을 잡아 구박한다. 엄마아빠도 해킹에서 재난을 당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 		
도움의 손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태경이를 따뜻하게 대해준다. 먼기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먼기에 대한 인식도 바뀐다. 엄마아빠가 현지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2.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맞물려서 진행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적어보세요.

나와 연결하기

【활동】 소설에서 '민기', '이슬람인', '조선인'은 힘세고 그 사회의 중심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p>일단 그 녀석이랑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 상황이 싫었다. 상이 좁아 바짝 붙어 앉았기에 그 녀석이 움직일 때마다 옷과 살이 닿았는데, 감촉이 느껴질 때마다 짜증이 났다. 무엇보다 음식을 허겁지겁 입에 쑤서 넣는 꼴이 몹시 거슬렸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문 54쪽 -</p>	<p>“소파까지 끌어다 모아놓고 지저분하게…….” 아빠가 혀를 찼다. “거기 출국장 아니야? 왜 저렇게 있대?” “모르지, 이슬람은 하여튼…….”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자들 머리에 저런 수건이나 씌우고 뭐하는 짓인지.” 엄마도 투덜거렸다.</p> <p style="text-align: right;">- 본문 12쪽 -</p>
---	---

	내가 남을 깔본 경험	남이 나를 무시한 경험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경험
어떤 상황이었나?			
그것은 정당했는가?			

타인 이해하기

【질문】 카즈마와 마사코는 왜 목숨을 걸고 조선인들을 구하려고 했을까?

<p>죽은 사람 얼굴이 내 다리 밑으로 보였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조금 전까지 내 동교들을 구하려고 온 힘을 다하던 카즈마 씨였다. 미친 자들이 같은 일본인마저 죽인 것이다. …… 그 순하디 순한 사람이 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다 죽임을 당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문 81쪽 -</p>	<p>저런 일본인(마사코)도 있다니, 더구나 여자인데, 뜻밖이었다.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해 내는 용감한 여자였다. 카즈마 씨가 떠올랐다. 카즈마 씨도 목숨을 걸고 우리 동료들을 구하려고 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본문 118쪽 -</p>
--	--

토론하기

다음 제시된 자료를 읽고 토론해 봅시다.

(가)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2015년 마지막 날과 2016년 1월 1일 사이, 즉 새해맞이 시기에 독일 쾰른에서 약 1,000여 명의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행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건. 특히 범죄자들은 여성들을 주로 노렸으며, 대부분의 범죄가 성범죄와 함께 자행되었다. 독일 연방 내무부는 32명의 용의자 대다수가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밝혔다.

출처 : 나무위키

(나)

“여자가 머리에 수건인지 히잡인지 두르고 있는 걸 보면 이슬람 맞아.”

엄마가 답해 주었다.

“소파까지 끌어다 모아놓고 지저분하게…….”

아빠가 혀를 찼다.

“거기 출국장 아니야? 왜 저렇게 있대?”

“모르지, 이슬람은 하여튼…….”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자들 머리에 저런 수건이나 씌우고 뭐하는 짓인지.”

엄마도 투덜거렸다.

- 본문 12쪽 -

(다)

그 한국인은 한참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사람들은, 아니 많은 한국 사람들은 테러를 걱정해요.”

“테러라니요? 누가요?”

그 한국인은 얼굴을 찡그렸다.

“설마 아빠를 테러리스트로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 한국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군인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정부 잘못을 알렸어요. 그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고, 한국까지 도망쳐 왔는데……, 테러리스트라니, 아빠가 테러리스트라고 의심을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빠는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아빠는 평화를 사랑해요.”

“나는 그걸 알아요.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아요.”

- 본문 162쪽 -

(라)

-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 2010~2020년 평균 난민 인정률
한국 1.3%. 미국 25.4%, 영국 28.7%, 프랑스 15.7%, 일본 0.3%, 중국 15.5%, 러시아 2.7%
 -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발생한 2018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70만 명 동의.
 - 한국인 인식조사(2021년.UNHCR) : 난민 수용 거부(53%), 찬성(33%)
거부비율 : 여성 56%, 남성 49%(여성이 남성보다 거부감 높음)
18~29세 65%(모든 연령대 중에 젊은 세대가 거부감이 가장 높음)
 - 난민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
 -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 증가
 - 범죄 등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 탈레반과 같은 테러리스트 유입 가능성
 - 가짜 난민이 많을 것 같다는 우려
 - 여성 차별과 같은 이슬람 문화 확산 걱정
- *참고 : 2018년 난민지원예산 : 8억 원 (542명 생계비 지원)

(마)

↳ 유럽에서 난민 수용으로 발생한 테러, 성폭력, 약탈, 방화 등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 딸아이를 키우는데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을 외출할 때마다 자주 마주칩니다. 그때마다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죠?

↳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여기가 내 고향인지 외국인인지 헷갈려요. 괜히 불안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한지 걱정하는 마음은 혐오가 아니에요.

- 출처 : 난민을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

(바)

“하야시, 너야말로 그 일본도 치워. 그 칼 들고 뭐하겠다는 거야?”
 마사코와 하야시는 아는 사이인 모양이었다.
 “불령선인들에게서 우리 마을을 보호해야 돼.”
 “너는 정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군대와 싸운다고 생각하니?”
 “소문이 그래.”
 하야시는 차분했고, 마사코는 매서웠다.
 “네가 직접 봤어?”
 “경찰도 경고하고 있어.”
 “경찰은 지진과 화재로 불안해진 백성들이 정부를 향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해. 그래서 애꿎은 조선인들을 과격으로 삼아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트리도록 만든 거야.”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만약이란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본문 140~141쪽 -

※ 난민(難民, refugee) :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토론주제】 지문에서 보듯이 많은 한국인들은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마)의 한국인들과 (바)의 하야시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이 걱정되는 사람을 경계하고 배척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한국인과 하야시의 태도가 정당한지 토론해 봅시다.

구분	주장	내 의견 <input type="checkbox"/>
주장1	한국인과 하야시 모두 정당하다.	
주장2	하야시는 정당하지 않지만, 한국인은 정당하다.	
주장3	한국인과 하야시 모두 정당하지 않다.	

■ 내 주장의 근거

■ 친구들의 근거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생각 확장하기

‘이름’은 이 소설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쓰입니다.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죠. ‘이름’에 담긴 의미를 탐색하고, 사람을 대하는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질문1】 왜 하야시는 일본인 범죄자 한 명은 일본인 전체와 구분하면서, 조선인은 단 한 명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모조리 (예비)범죄자 취급을 할까?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야시 말에는 이미 힘이 빠지고 없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한 사람만 벌해. 한두 명이 그랬다고 모두가 그랬다는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 내가 알기로는 지진을 틈타 수많은 일본인들이 못된 범죄를 저질렀어. 이 마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너는 일본 사람 전체를 범죄자로 몰아서 닥치는 대로 죽일 거니?”
 하야시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거봐. 왜 하야시 너는 일본인 범죄자 한 명은 일본인 전체와 구분하면서, 조선인은 단 한 명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모조리 범죄자 취급을 해?”

- 본문 141~142쪽 -

【질문2】 왜 태경은 ‘그 녀석’이라고 부르다가 ‘민기’라고 호칭을 바꿨을까요?

그 녀석이었다.
 꺼지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내 슬픔이 지나치게 컸다.
 “두 분 다 무사히 돌아오실 거야.”
 그 녀석 답지 않은 말투였다.
 “떠날 때마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던 우리 아빠도 늘 돌아왔어.”
 나는 울음을 억지로 참았다. 고개를 돌려 녀석을 보았다.
 “대사관에서도 잘 해준다잖아. 두 분 다 괜찮으실 거야. 우리 아빠처럼.”
 울컥했다. 그러면서 ‘엄마는’이라고 물어보려다 말았다. 민기 말투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과 그리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 본문 135쪽 -

【질문3】 왜 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 한 명의 범죄는 그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이슬람인(난민)의 잘못은 이슬람인 전체의 잘못으로 취급하는 걸까요?

- ↳ 유럽에서 난민 수용으로 발생한 테러, 성폭력, 약탈, 방화 등 범죄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 ↳ 딸아이를 키우는데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을 외출할 때마다 자주 마주칩니다. 그때마다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죠?
- ↳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한지 걱정하는 마음은 혐오가 아니에요.

【질문4】 왜 기독교인 한 명의 잘못은 그 개인의 책임인데, 유대인 한 명의 잘못은 모든 유대인의 책임이 되었을까?

‘기독교인 한 명의 잘못은 그 개인의 책임이고
유대인 한 명의 잘못은 모든 유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옛 진리를 확인하면 더욱 슬퍼져.
「안네의 일기」중에서

- 본문 8쪽 -

※ 참고자료

1) 안네 프랑크 Anne Frank

『안네의 일기』의 저자. 1929년 생. 유대인.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한 1942년부터 은신하며 생활하다 1944년 8월에 밀고로 은신처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수용소로 끌려가서 1945년 3월에 세상을 떠난다. 훌륭한 작가와 언론인이 되기를 꿈꾸던 소녀 안네는 은신 생활을 하며 쓴 일기에 '은신처'에서 지내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 고뇌를 '사춘기' 감성으로 섬세하게 그려낸다. 안네가 쓴 일기는 가족 중에 홀로코스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 오토 프랑크에 의해 책으로 출간된다. 『안네의 일기』는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었고,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이 즐겨 읽는다.

2) 홀로코스트(Holocaust, 1933~1945)

나치 독일 정권이 동맹국들과 협력자들과 함께 600만 유럽계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대규모로 학살한 사건. 홀로코스트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유대인 혐오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유럽에서 아주 오래되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유대인이 주로 했던 고리대금업(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나 상업으로 피해를 보거나, 그들의 부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홀로코스트 이전에 유대인 혐오 정서는 유럽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베니스의 상인」,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고전 명작에도 유대인 혐오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이다.

【질문5】 특정한 사람을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집단의 이름'으로 부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참, 이름이 뭐죠?”

“네?”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오래 머물 텐데 서로 이름을 불러야죠.”

맞다. 내게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수없이 죽어간 동포들도 모두 이름이 있다. 수많은 동포들이 이름도 불리지 못한 채 죽임을 당했다. 누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다. 일본도를 휘두르고, 도비구치로 내리찍고, 총을 소면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죽이는 조선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음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들이 조선 사람들 이름을 알았어도, 조선 사람들에게 갖든 사연을 하나하나 다 알았어도, 과연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들은 이름을 알지 못했다. 이름이 가려질 때 광기가 퍼져 나간다.

“좋네요. 제 이름은 이경석입니다.”

- 본문 156쪽 -

【질문6】 태경은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너는 이름이 뭐야?”

그 남자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슬며시 웃었다.

“알리, 내 이름은 알리야.”

알리는 아랍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자기 이름을 소개했다. 말씨가 워낙 자연스러워서 내 말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반가워, 알리! 한국에 온 걸 환영해.”

- 본문166~167쪽 -

【질문7】 알리의 질문에 답해보세요.

“한국 사람들도 내전을 겪었으면서 왜 내전을 피해 살기 위해 온 우리를 냉대하는 거죠?”

“한국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같은 동포끼리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피해서 온 우리를 품어주지는 못할망정 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죽은 제 동생인 수아드는 K-POP을 사랑했어요. 수아드가 가장 오고 싶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수아드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구요. 그런데 한국은 왜 우리를 이렇게 차갑게 대해요?”

- 본문 162~163쪽 -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흔히 독후감은 '동기-줄거리-감상', 또는 '요약-인상 깊은 장면-경험·감상'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만 쓰니 독후감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형식'을 택하면 독후감 쓰기도 쉽고, 내용도 신선합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1)형식을 택하고, 2)형식에 맞는 준비를 한 다음, 3)핵심 요령을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쓰면 됩니다. 초고를 쓴 뒤에는 쪽 읽으면서 부드럽게 고치기만 하면 독후감이 완성됩니다.

형식선택	준비항목	독후감을 쓰는 핵심요령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편지 쓰기 형식에 맞춰서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책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담는다.(신변잡기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여는 글 : 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인터뷰 취지를 쓴다. • 인터뷰 : 실제 인물이 답하듯이 쓴다.(역지사지) • 닫는 글 : 인터뷰 내용 정리, 감상, 생각 등을 정리한다.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기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자기 경험을 실감나게 소개한다. • 소설과 비슷한 점을 거론하며 깨달고 느낀 점을 제시한다.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떨지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기행문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내가 소설 속 장소를 방문하거나,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흥미진진하게 서술한다.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룰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기사를 쓰는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사건소개, 인터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섞어서 쓴다. • 기사처럼 제목을 붙인다.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평가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다. • 일정한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이 평가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사고방식 등을 다룬다.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소개한다. • 한 문장이 내게 끼친 영향, 깨달음, 느낀 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세하게 서술한다.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 토론주제가 나온 상황을 정리한다. • 자기 의견을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 반드시 반대 의견을 다룬다.(반론과 재반론 형식으로)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 책 내용과 시사문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소개한다. • 책에서 수립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 서평은 책 소개글이므로 소개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설명한다. • 책이 지닌 매력과 책을 권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독후감 예시는 『청소년 독서콘서트』(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독후감 쓰기 준비

- 1단계 : 자신이 원하는 독후감 형식을 선택합니다.
- 2단계 : 선택한 독후감 형식의 준비사항①~③을 오른쪽 '준비사항①,②,③'에 각각 적습니다.
- 3단계 : 독후감에 적을 세부 내용을 각 준비사항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준비사항①~③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p>준비사항① 인터뷰 대상 설정</p> <p>인터뷰 대상 : 정치, 철학은 주요, 두 사람과 정복하게 삶다. 권력으로 모든 것 획득, 선한 인성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 많이 인형극에서 잘못게 지냈. 권력이 왜 선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토론.</p> <p>준비사항② 글꼴을 다양하게 준비</p> <p>이 독후감 친구들을 읽었을 때 어떤 친구가?</p> <p>이 권력에서 어떻게 되었는지?</p> <p>이 권력에서 어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p> <p>이 권력이 왜 선정을 거부한다고 생각되는지?</p> <p>준비사항③ 글꼴 생각해 보기</p> <p>이 책을 읽었는데, 어느 분야에 관심이 생겼어.</p> <p>이 권력에 관심이 되지 않으려고 하였다.</p> <p>도전할 수 있는 것, 학문, 전문</p> <p>이 권력은 사람들의 정복적인 생각이 제일 싫고 힘들다.</p> <p>이 권력을 지배하는 것 같다. 그 실재물이다. 이윤창에 대한 권력이 정복하는 것 같다.</p>
■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input type="checkbox"/>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input type="checkbox"/>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input type="checkbox"/>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준비사항①

준비사항②

준비사항③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할 때는 평가를 하지 말고 독자로서 반응해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독후감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2. 친구들이 쓴 독후감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도 있습니다.